

# 이뒀고 無자 등 화두들며 '나' 비운다



서울 성북동 전등선원에서 수행중인 재가자들을 선원장 동명 스님이 지도하고 있다. 전등 선원에는 20명의 불자들이 가행정진 중이다.

## 전국 80여 재가선원...3000여 명 용맹정진

'선지식들아, 수행은 세속에서도 가능한 것이며(在家亦得) 사찰에 있거나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不在在寺).'

육조 혜능(六祖 慧能) 스님이 출가자 아닌 사람도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7월 26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안국선원 4층 대법당에서는 재가불자 500여 명이 빼곡이 앉아 참선 정진에 매진하고 있었다. 이들은 하나 같이 화두를 참구하고 있었다.

재가 불자와 일반인 사이에서 선방 스님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던 화두 수행자가 매년 늘고 있다. 현재 전국 80여 재가자 선원에는 3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재가불자들이 3개월 동안 용맹정진 하고 있다. 특히 여름과 겨울 진행되는 안거 기간을 맞아 산사들은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열었다.

참선은 지도를 받지 않고선 성과를 얻기

어려운 공부다. 그렇기 때문에 재가자 선원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곳은 선승으로 이름 높은 지도법사들이 있는 곳이 꼽힌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있는 부산 해운정사, 송담 스님이 주석하는 인천 용화선원, 해국 스님이 주석하는 중주 석종사 등이다. 석종사의 경우 하안거에 재가자 100여 명이 신청했다. 절반 가량은 주말을 기해 선방을 찾는다. 3개월간 사찰에 머물며 속식하고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찰에 따라 50만~70만원 선이다.

최근에는 직장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을 위한 수행공간이 급증했다. 각 사찰과 선원은 재가불자들을 위한 수행공간을 마련하며 직장생활, 가정생활의 특수성을 배려한 맞춤형 수행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안거 기간은 3개월 이지만 방부를 들인 뒤 산문 출입이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비용도 10~20만원 선으로 숙식을 하며 수행하는

것보다 크게 낮다.

이런 재가자 선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선원과 신도 및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신도중심형 선원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서울에서도 도심에 위치한 강남 봉은사의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선원의 대표격이다. 봉은사는 재가자를 위한 봉은선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매일 1일 입방 원서를 받고 면접을 통해 방부를 들이도록 하고 있는데 기초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도 면접을 통과하면 선수행을 체험할 수 있다. 선방에서 수행은 오전 4시 시작해 오후 9시까지 상시 개방돼 자율적으로 어느 때건 할 수 있다. 7월 재가자 안거기간에는 120 여 명이 방부를 들었다.

남궁강 봉은사 교육팀 팀장은 "명상과 힐링을 위해 찾는 비불자들의 수도 상당수 된다. 와서 선수행을 접하고 불교에 관심을 가져 기초교육을 받고자 하는 일반인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서울 안국선원은 안거 수행에 집중을 요하는 대표적인 선원이다. 안국선원은 안거 수행에 앞서 선원장 수불 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7박 8일간의 간화선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한다. 안국선원의 재가자 안거 기간은 3개월 보다 짧은 2개월이다.

안국선원 흥법부회장 음암 거사는 "기존 3개월 안거가 방학과 휴가 등에 비해 길어 신도들의 집중력 있는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기간을 줄였다"며 "이런 수행을 하고자 하는 재가자들의 수가 매년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국선원 재가자 안거에 방부를 들인 재가불자들은 서울만 해도 지난해에 비해 100명 가량이 증가한 1000여 명 수준이다.

그동안 한국불교에서 참선 수행은 출가자의 것이라 인식의 상당했다. 재가불자들의 안거수행 동참은 세상과 호흡하는 새로운 불교 운동의 새 불빛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글=노덕현 기자 noduho@hyunbul.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 참선 수행 사찰

사찰및기관	연락처(접수)	사찰및기관	연락처(접수)
봉은사 봉은선원	(02)512-9171	대구 보현선원	(053)254-6966
정안사 묘심선원	(02)523-8005	대구 영남불교대학	(053)474-8228
화계사 국제선원	(02)902-2663	대구 원효불교대학	(053)563-9155
길상사 시민선원	(02)3672-5945	영주 부석사	(054)633-3464
법륜사 시민선원	(02)733-5322	김천 직지사	(054)436-6013
선학원 시민선원	(02)732-3327	부산 금화사	(051)582-3042
안국선원	(02)732-0772	부산 범어사	(051)508-3122
임제선원	(02)883-6397	부산 흥법사	(051)508-0345
금강선원	(02)445-8484	부산 홍제사	(051)802-0130
공생선원	(02)900-2448	부산 해운정사	(051)746-2256
우곡선원	(02)529-5027	부산 해운정사	(051)866-7771
임제선원	(02)888-6397	부산 우곡선원	(051)740-6288
전등선원	(02)762-0643	부산 안국선원	(051)892-9877
인천	(031)903-9627	경상 부산 영주암	(051)754-2210
안성 활인선원	(031)671-7707	부산 미타선원	(051)253-8587
수원 공소사 시민선방	(031)246-1001	부산 겹외선원	(051)464-0068
수원포교당 시민선방	(031)255-2692	부산 여의선원	(051)853-5486
인천 용화선원	(032)872-6061	부산 안국선원	(051)583-0993
공주 갑사 대자암	(041)525-0330	울산 화성선원	(052)272-5352
대전 현문선원	(042)257-0996	마산 정인사	(055)256-5450
대전 보현문화관	(042)624-6555	해인사 백련암	(055)932-7300
대전 국은사	(042)522-0300	해인사 원당암	(055)932-7308
청주 용화사	(043)274-2159	통도사 취운선원	(055)383-6479
광양 보광사	(061)763-1192	함양 황대마을선원	(055)963-9551
광주 금륜회관	(062)224-0175	창원 안국선원	(055)281-0772
원주 흥림암	(063)263-6072	양산 극락암	(055)382-7083
		밀양 대흥선원	(055)352-1150
전라		제주	
		남국선원	(064)733-2278
		원명선원	(064)755-3322



서울 전등선원 참선대중이 좌선 사이에 포행을 하고 있다.



## “쉽게 얻으려면 구하기 어려워”

서울 봉은사 선원장 석장 스님

“불교와 수행에 대해 예전에 비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부족한 편입니다. 깨달음을 위해서라면 불길이라도 걷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봉은사 선원장 석장 스님은 용맹정진에 대한 재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결실로 회향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스님은 “봉은사에서 지도해 보니 열심히 수행하는 재가자들의 모습에서 스스로도 느낀 바가 많았다”며 “실질적으로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그렇기 때문에 수행에 있어 이를 바르게 이끌어 주는 스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재가자들은 스님

들이 10년, 20년 해도 안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란 두려운 마음을 먼저 낸다. 이런 두려움 없이 바로 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현재 불교계의 수행환경은 잘 갖춰져 있지만 도심에서 참선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다양한 연령대와 근기에 맞게 쉬우면서 때론 어렵게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장 스님은 끝으로 “재가자 수행은 안거 외에도 생활 속에서 수행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 속 5분 수행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 “일상에서도 수행 가능합니다”

서울 전등선원장 동명 스님

서울 성북동 전등사 전등선원장 동명 스님은 40년 재가불자들을 제정하고 있다. 현재 재가 안거 역사의 산 증인이라는 이야기다.

스님은 전등선원의 특징으로 가정을 지키면서 일정 시간에 수행 정진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꼽았다. 방부를 들어 숙식하며 용맹정진하는 것보다 재가자는 생활을 하며 수행에도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쁜 재가자들은 시대를 역행하면서까지 수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환경이 다릅니다. 시민 선원은 이런 다양함을 고려하면서도 부처님의 바른 법과 수행을 재가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만큼 스님은 재가자들이 일상생

활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충고한다. 삶이 곧 선이고 수행이라는 것이다.

“청소도, 빨래도 일상생활의 만 가지 행동이 모두 수행입니다. 법당에서 지극히 올리는 기도도 수행입니다. 너무 참선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와 함께 동명 스님은 재가 안거와 시민선원을 이끄는 스님들도 재가자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끔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편화 되고 있는 시민선원의 안거를 이끌 스님들의 수행력도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거와 시민 선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재가자가 자유롭게 수행하고, 이 수행이 일상생활 속으로 이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끄는 스님도, 재가자도 이를 간파해서는 안됩니다.” 신종일 기자



##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알기 쉬운

#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 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강 의 일 정 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궁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